

20

th Anniversary

포커스 20주년 사진집

CUS 2018



FOCUS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가정과 일터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을 만끽하는 사람들...
 다람쥐 쳇바퀴 돌던 하루를 이탈하여 시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거친 빛속을 뚫고, 또는 눈보라 속에서도 사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포커스가 어느덧 20년이란 세월을 걸어서 오늘 이자리에 오기까지는 회원님들의 열정과 교민동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후원의 덕분임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카메라를 친구삼아 눈에 들어오는 일상을 사진으로 디자인하고, 쉽게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순간들을 진솔하게 사진으로 담아서 남기며,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포커스 회원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교민사회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보답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포커스로 성장 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 부탁 드립니다.

FOCUS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with...

the people who travel through time and nature...

the people who endure the storms and hardships..

the people who dedicate their lives and effort...

all to “design” art through photography...

It is Focus’ great mission to inspire people to see the true beauty of life through the lens of our cameras. It has been a great joy to be able to capture the moments of life and “re-design” them into something extraordinar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avid supporters and members of Focus for kindly donating their time and relentless efforts for the past 20 years.

We hope to continue to grow and nurture the Korean-Canadian photography community with your love and support and establish ourselves as the centre of culture gathering space.

FOCUS 회장

Ki Sun Agnes Kim

축사 | CONGRATULATORY MESSAGE



청명한 날씨에 녹음이 우거지기도 하며 붉은 물감을 풀어놓듯 낙엽이 지고, 끝 없이 내리는 눈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캐나다에서 사진동호회 FOCUS가 카메라에 찰나의 시간을 담아온지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97년 카메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사진속에 신선함을 담아오던 사진동호회 여러분께서 정기적인 모임과 작품전을 개최하여 사진에 대한 열망으로 늘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진동호회 FOCUS 김기선 아그네스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 깜짝 할 사이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에 두근거리며 필름 현상을 기다리던 지난 날 부터 오늘 날 핸드폰 하나면 사진이며 동영상까지 손 쉽게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히 찍을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핸드폰과 컴퓨터 속에서 잊혀지는 사진도 많아짐에 한편으론 아쉬움을 느낍니다. FOCUS를 통해 사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작품전을 통해 대중과 사진 속의 감동을 공유하여 이곳 토론토에서도 한인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예술의 영역을 넓혀 주시는 것에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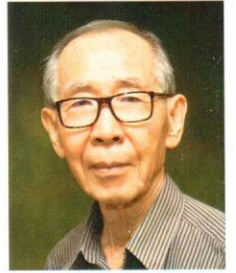
20주년을 맞이하여 아름답게 꽃이 피 열매를 맺고 있는 사진동호회 FOCUS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작품활동을 통해 토론토 한인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ay, 11, 2018

토론토 한인회장

이기석



사진예술의 현주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점차 기계화 되고 자동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카메라라는 것이 무척 귀한 물건이고 보기조차 쉽지 않은것 이어서
 마치 가보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가질수 있는
 평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특별한 행위가 아니고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 일상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사진으로 찍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진 찍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조금만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금새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현장을 둘러쌉니다.

이제는 사진작품 또한 특별히 훈련받은 작가들 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첨단화된 카메라 덕택에 기술적으로는 탓할수 없는 작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서로 얼키고 설킨 현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떤 주제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표현 하여야 좀더 신선한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도강사

전경수



Focus Toronto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두 번쯤 변했을 테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이 된 셈이다.

1998년 가을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창립사진전을 열고 사진집을 발행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창립 20주년이 되었다. Focus Toronto를 함께 창립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참 남다르다. 창립 사진전은 당시 척박했던 교민사회 문화예술 터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한 획을 그었던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그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회원전을 열어온 여러분의 대단한 열정은 찬사 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교민사회를 뛰어넘어 캐나다 주류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을 거듭해온 점은 절대 가볍게 평가될 일이 아니다.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생업 틈틈이 작품을 마련 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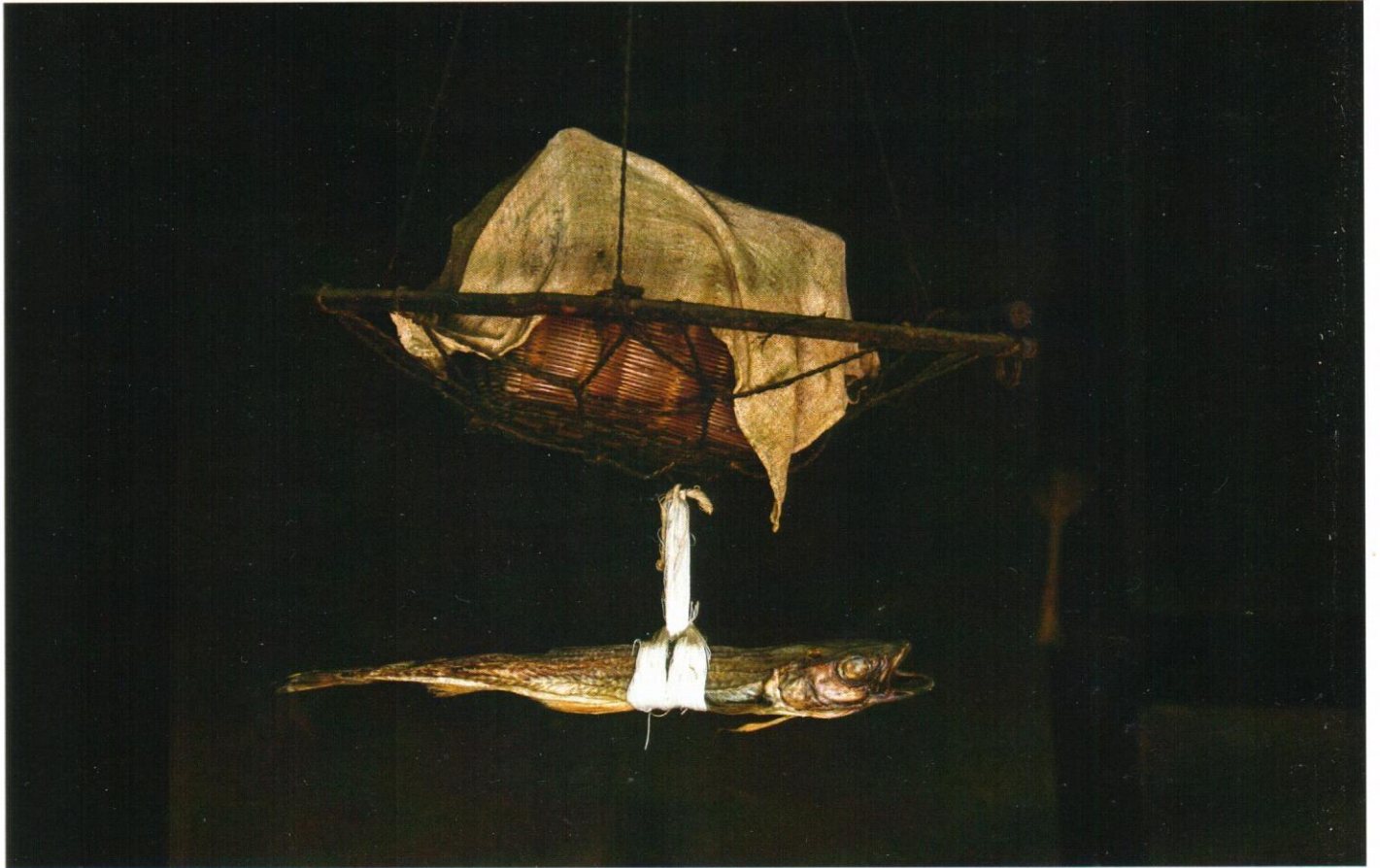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대량보급으로 이제 누구라도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찍은 모든 사진이 작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여러분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애정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사진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진 속에 따뜻한 얘기들이 듬뿍 담겨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고국의 사진동호회와 교류전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그동안 Focus Toronto를 지도해주신 전경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Focus Toronto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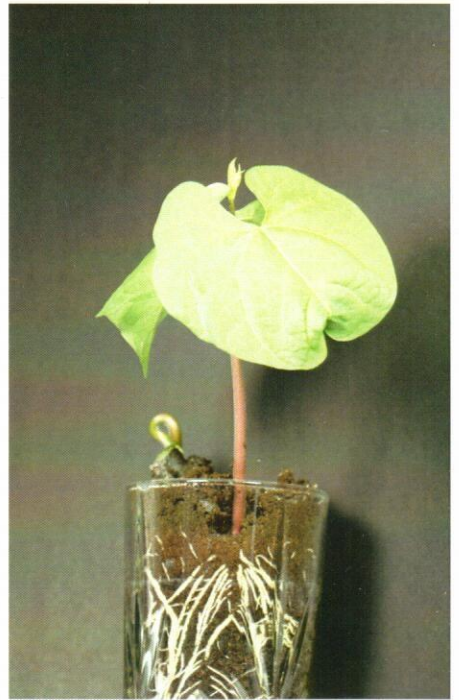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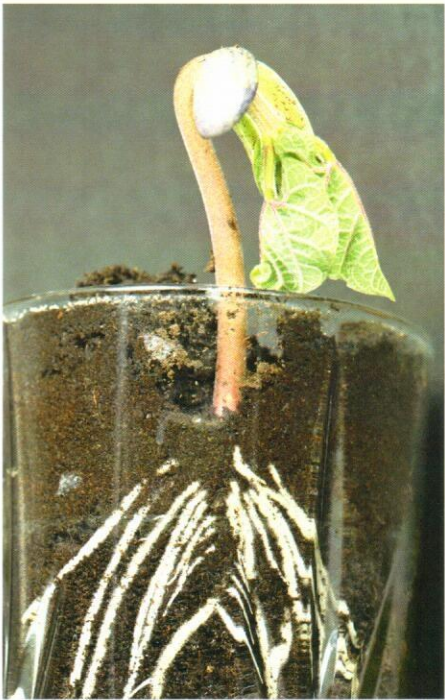
서울에서

전 호남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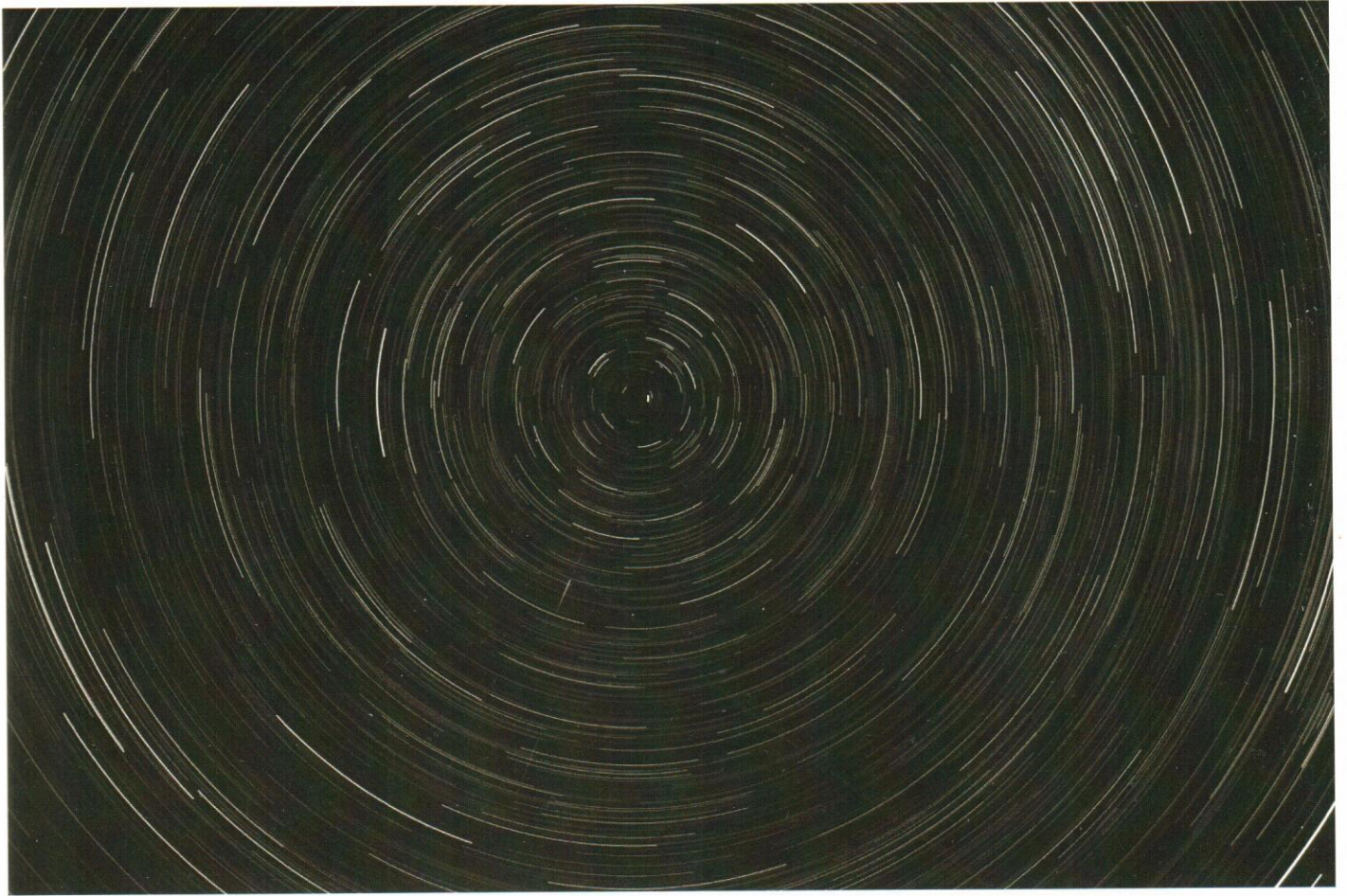
유병용



염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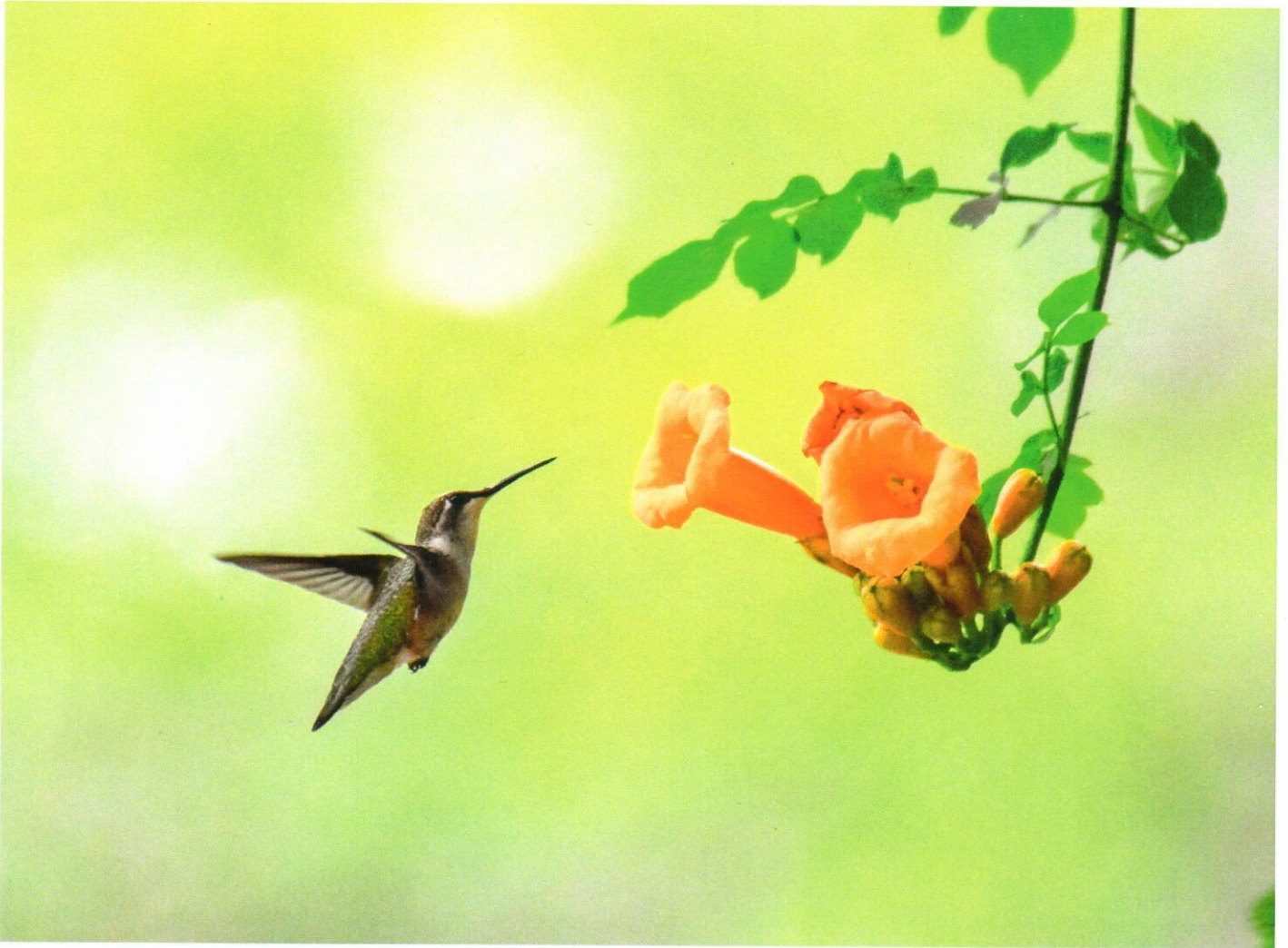
Pea Germination Time Lapse



심코호수 별궤적



금병한
Brian K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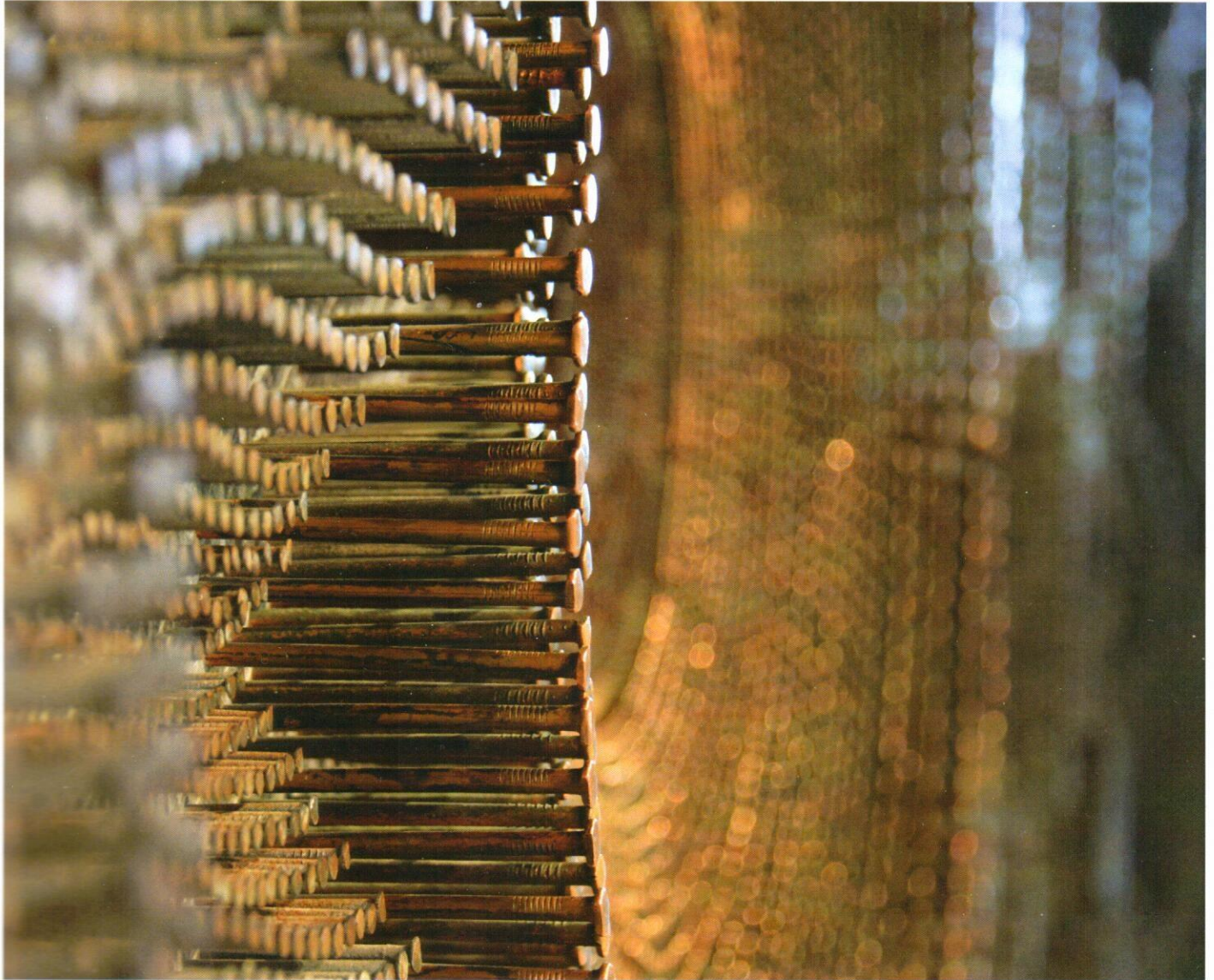
Hello Hummingbird!



경배와 찬양

김구명
Ku Myung Kim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Gateway to Heaven



김기선
Agnes Kim



White Tiger



모정



김봉선
Grace Kim



Aurora



Egyptian



Olivia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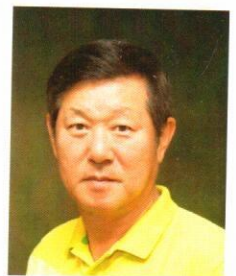


Watkins Glen



Beyond the plane

김용수
Yong So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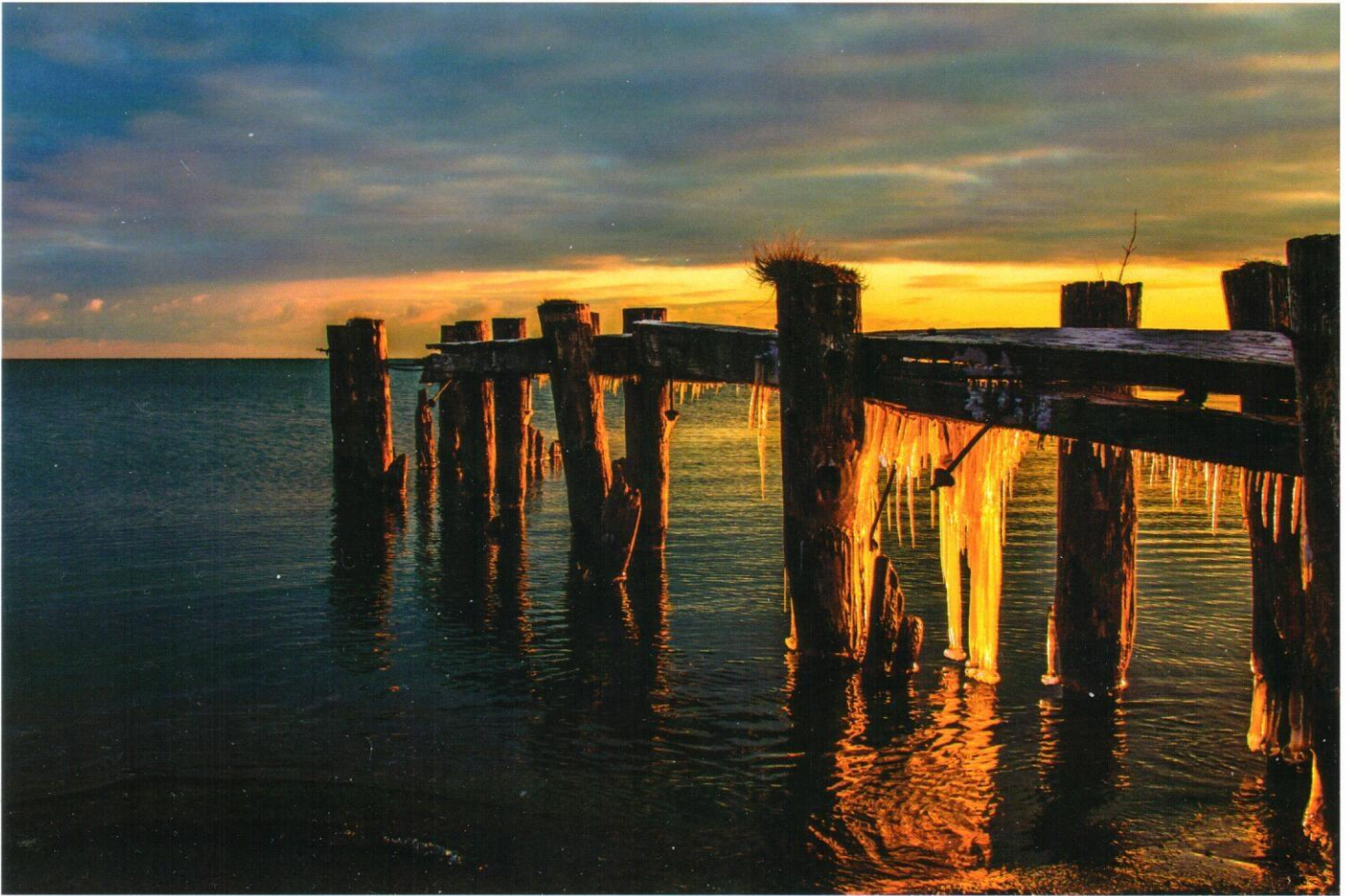
Grand Canyon



Zion National Park



서강계
Kay Seo



Sunrise through Ic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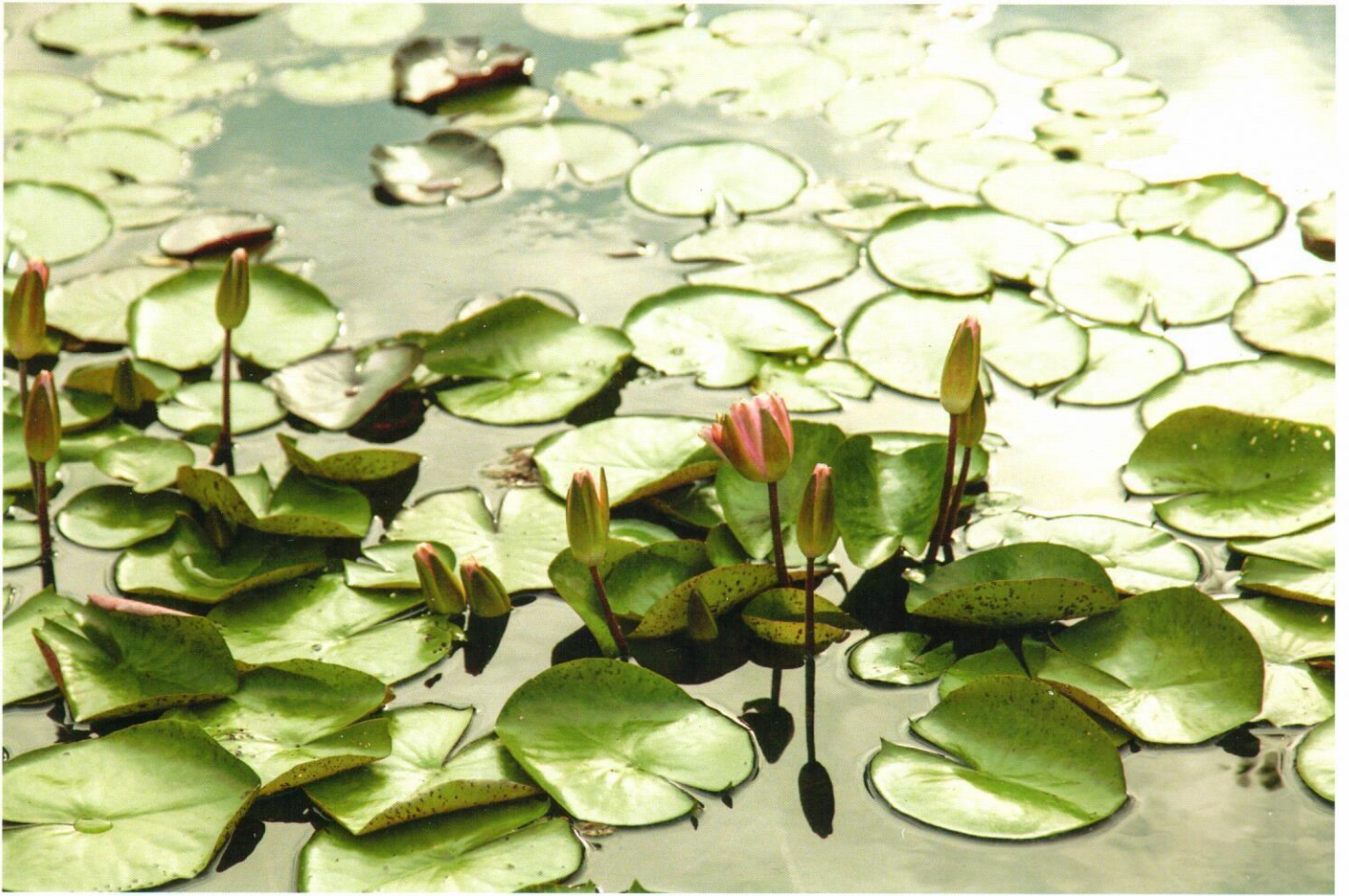
Aurora Borealis

신복균
Joseph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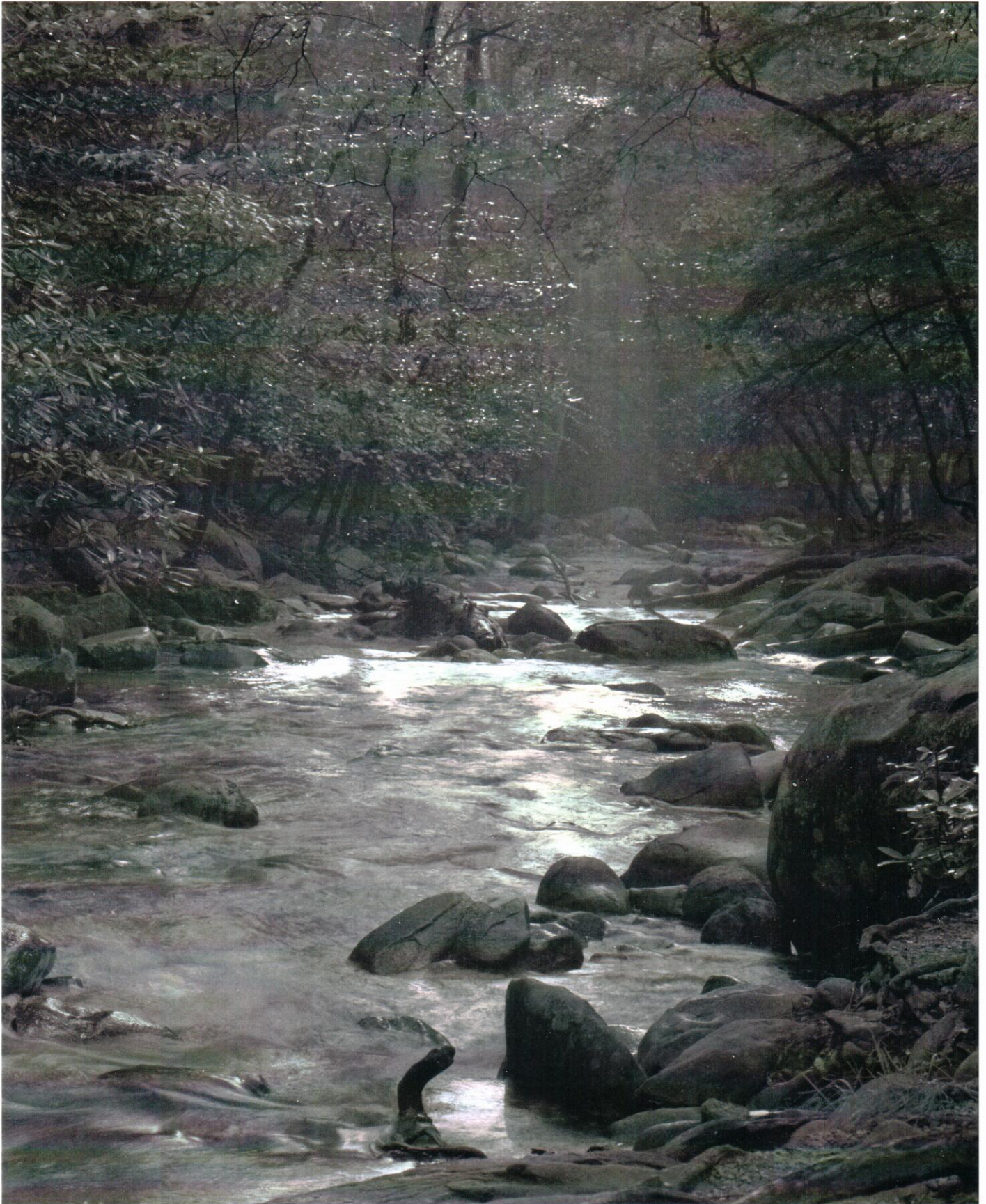
Oh Happy Day



수련

이영실
Young S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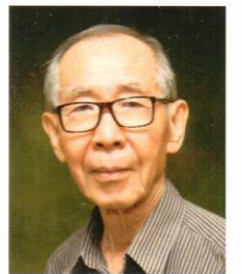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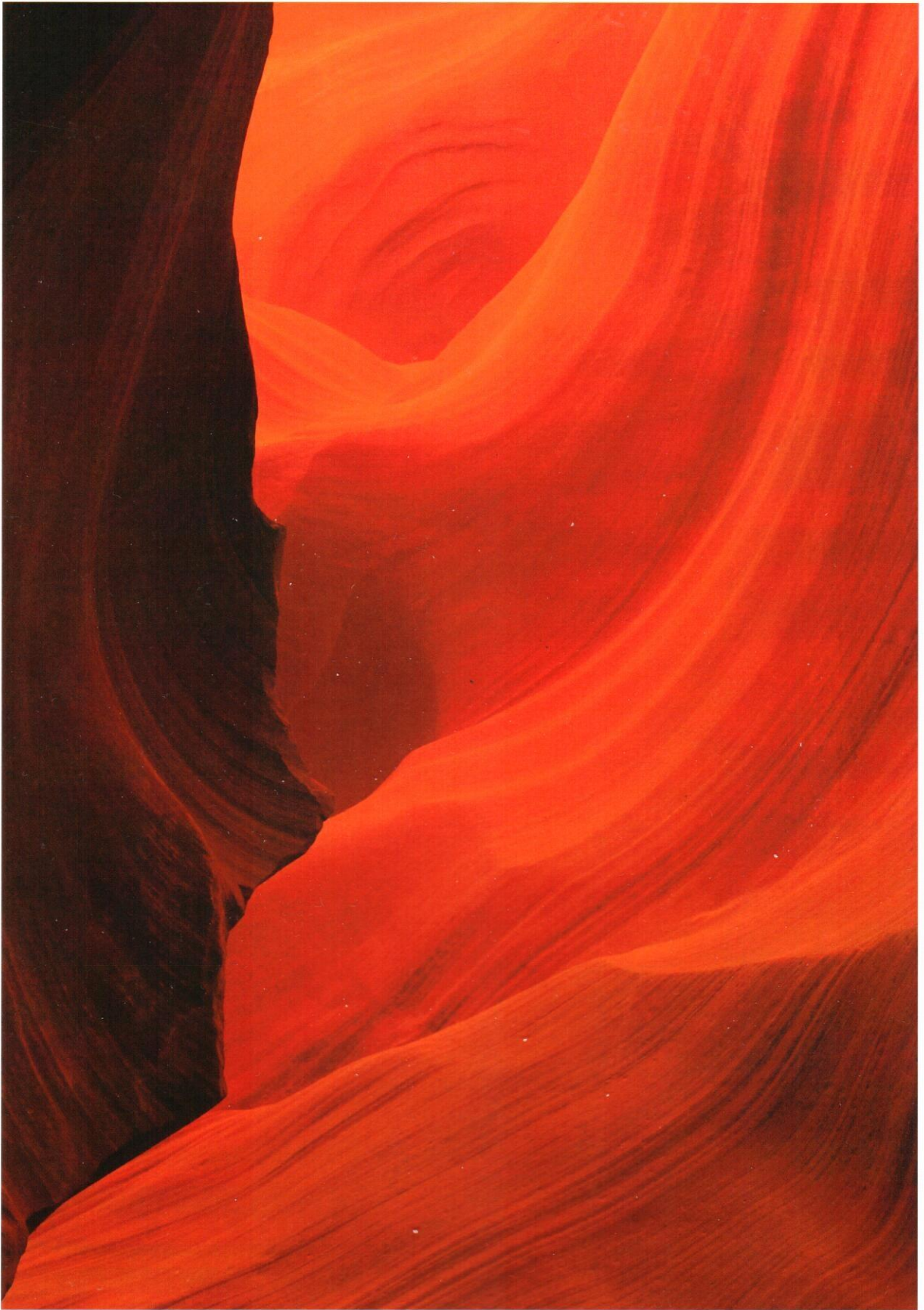
Summer C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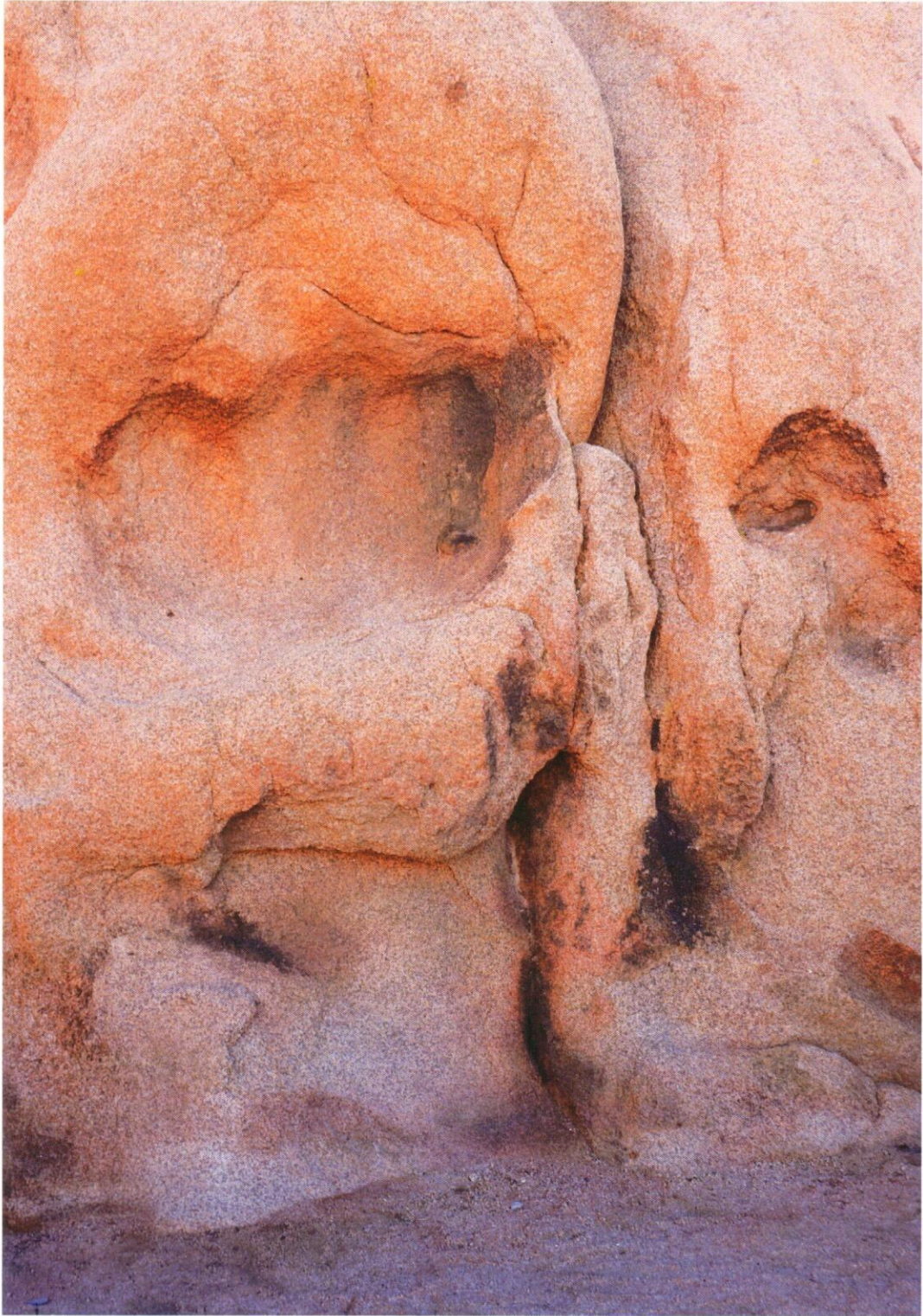
Storm

전 경 수
David J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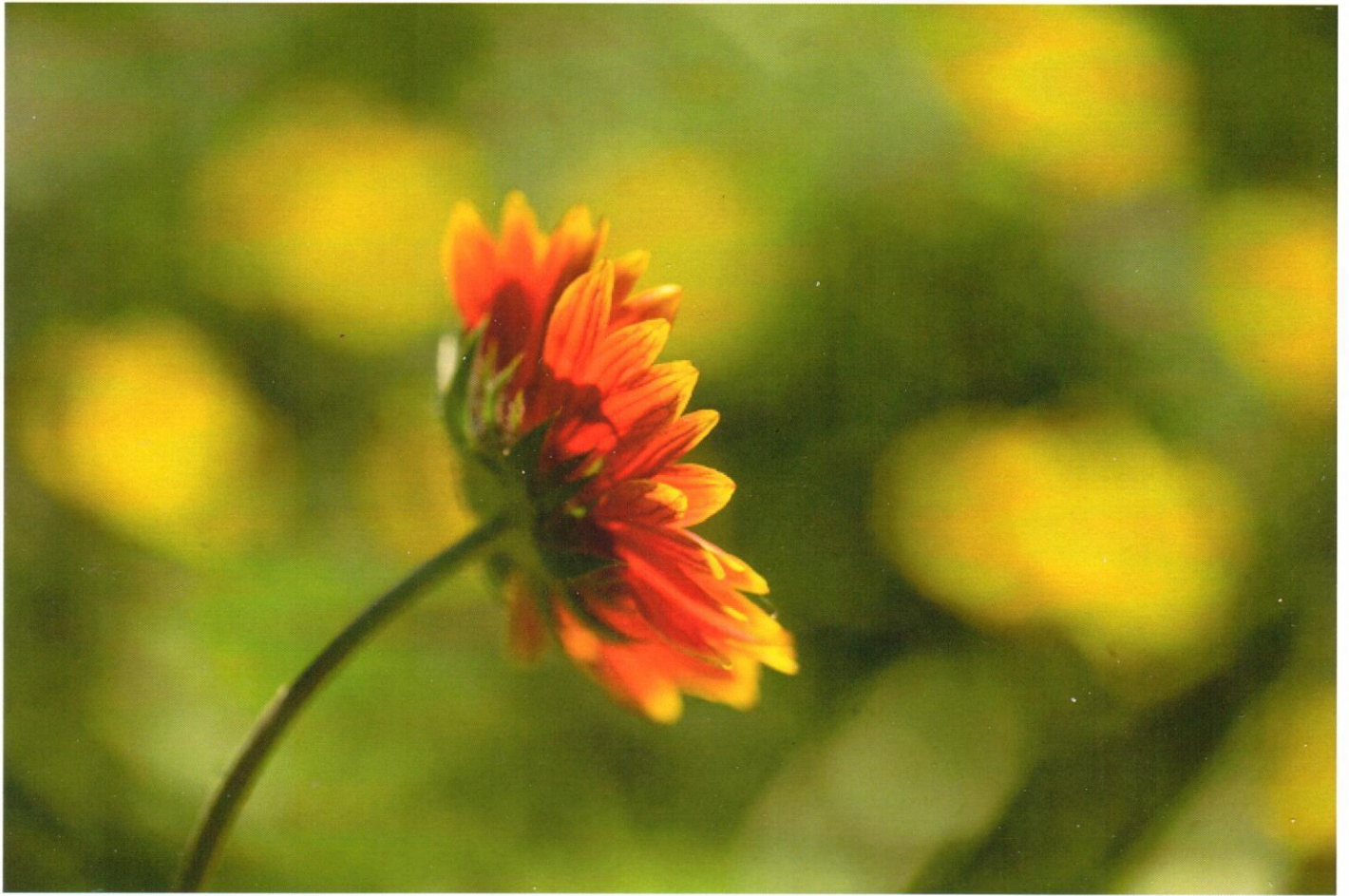
Natural Sculpture 1



Natural Sculpture 2

전 인 숙
In Sook Jeun





여름국화



꽃 봉우리

최순명
Soon Myung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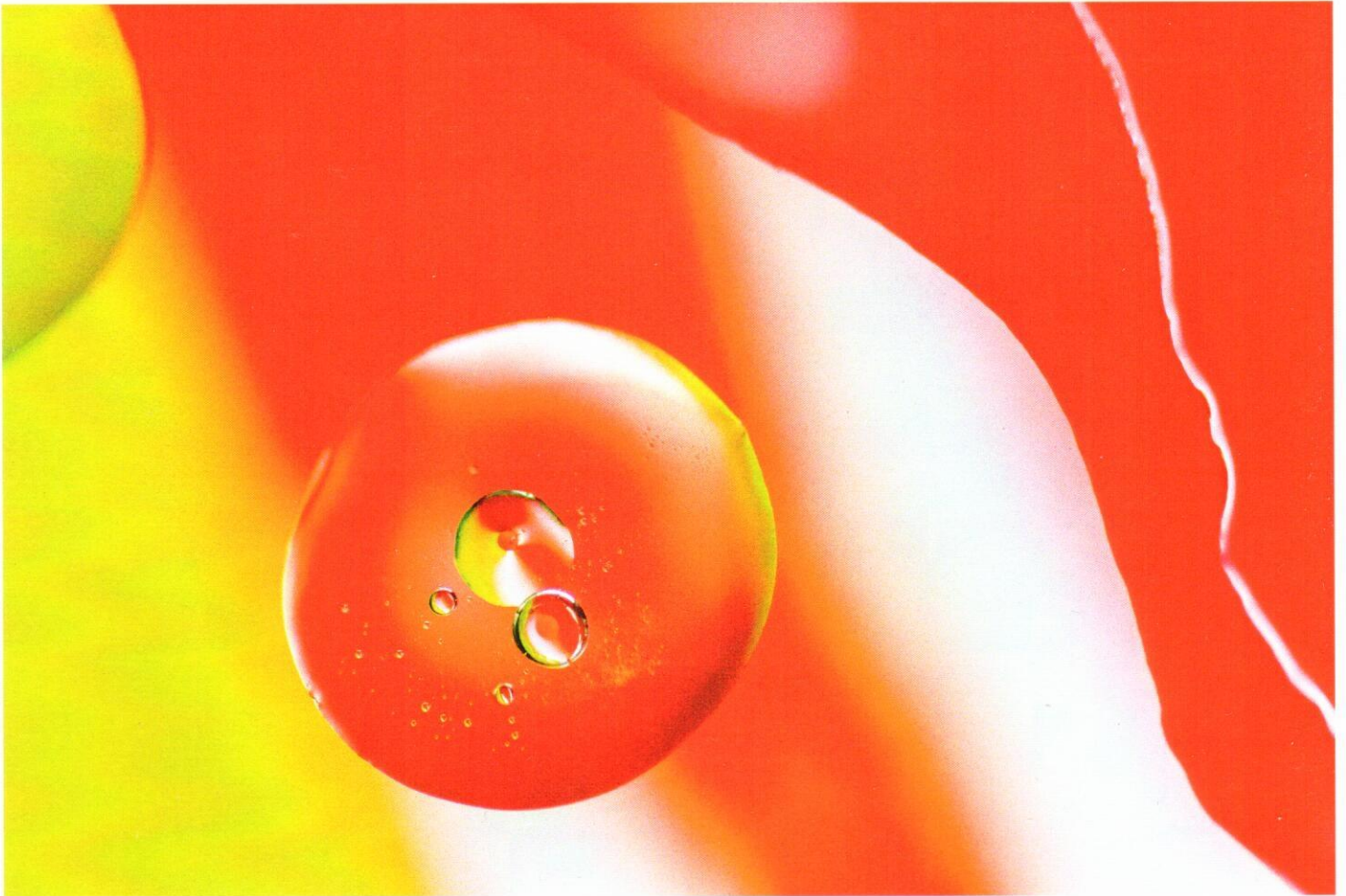
Standby



Untitled

최 옥 규
Cecilia Choi





Design of oi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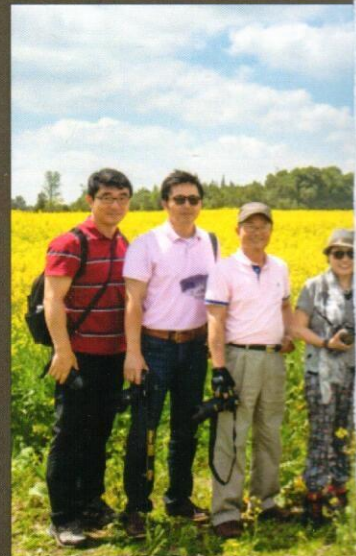


Design of oil 2

한혜숙
Heasuk Han



포커스의 지난 발자취 199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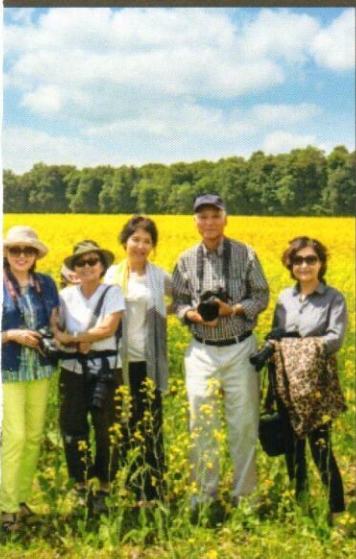


Members

금병환 김구명 김건혜 김기선 김동욱 김봉선 김상문 김용수 Olivia Kim
 김주원 김현석 명인순 민승기 서강계 서영석 신복균 신숙자 이경애 이상영
 이영실 전경수 전병걸 전인숙 최순명 최순화 최옥규 한혜숙

포커스의 지난 발자취

제 1 회	창립 작품전	: 1998년 - 한인회관
	초대 작품전	: 1999년 - 큰빛 장로교회
제 2 회	정기 작품전	: 1999년 - 한인회관
제 3 회	정기 작품전	: 2000년 - 한인회관
	장학의 밤 초대전	: 2000년 - Prince Hotel
제 4 회	정기 작품전	: 2001년 - 한인회관
	한인의 날 행사 초대전	: 2002년 - 토론토 시청광장
제 5 회	정기 작품전	: 2002년 - 한국일보사
제 6 회	정기 작품전	: 2003년 - 한인회관
제 7 회	정기 작품전	: 2004년 - 토론토 총영사관
제 8 회	정기 작품전	: 2005년 - 토론토 총영사관
제 9 회	정기 작품전	: 2006년 - 한인회관
제 10 회	정기 작품전	: 2007년 - 도산 갤러리
제 11 회	정기 작품전	: 2008년 - 도산 갤러리
제 12 회	정기 작품전	: 2009년 - 도산 갤러리
제 13 회	정기 작품전	: 2010년 - 도산 갤러리
제 14 회	정기 작품전	: 2011년 - 도산 갤러리
제 15 회	정기 작품전	: 2012년 - 도산 갤러리
제 16 회	정기 작품전	: 2013년 - 도산 갤러리
제 17 회	정기 작품전	: 2014년 - 도산 갤러리
	작품전	: 2014년 - North York Library
제 18 회	정기 작품전	: 2015년 - 도산 갤러리
제 19 회	정기 작품전	: 2016년 - 도산 갤러리
	작품전	: 2017년 - Richview Library
	작품전	: 2018년 - Agincourt Library
제 20 회	정기 작품전	: 2018년 - 도산 갤러리



The background is a dark, textured blue. Overlaid on this is a large, abstract geometric pattern composed of several overlapping, thick, medium-blue lines. These lines form a series of interconnected shapes, including a large circle on the right side and a smaller circle on the left, with various other curved and straight segments connecting them. The overall effect is a complex, layered geometric composition.

캐나다 토론토 사진동호회 FOCUS
www.focustoronto.com